<h1>나 혼자만 레벨업-83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l471af79b0f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83화</p>  
<p>순간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.</p>  
<p>'언제 왔지?'</p>  
<p>보스에 정신이 팔려 누가 오는 줄도 몰랐다.</p>  
<p>'들켜 버렸네.'</p>  
<p>진우는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다.</p>  
<p>쩝.</p>  
<p>하지만 목격자가 생긴 이상 더 이상 보스에게 눈독을 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헌터스가 이번 게이트의 공략 허가권을 샀으니, 던전의 보스 또한 헌터스의 재산이라 할 수 있었다.</p>  
<p>거기다 보스를 잡으면 게이트가 닫혀 버리기에 헌터스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다.</p>  
<p>'큰일 날 뻔했네.'</p>  
<p>레벨업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것에 손을 댈 뻔했다.</p>  
<p>겨우 정신을 차린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이, 목소리의 주인이 다가왔다.</p>  
<p>"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."</p>  
<p>진우는 민망한 듯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.</p>  
<p>"길을 잃어서 그만 여기까지 왔네요."</p>  
<p>"길을 잃었다고요?"</p>  
<p>황당하다는 말투.</p>  
<p>진우는 그제야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.</p>  
<p>'어? 이 여자는...?'</p>  
<p>던전에 들어오기 전에 봤던 얼굴.</p>  
<p>S급 여성 헌터 차해인이었다.</p>  
<p>차해인은 천천히 거리를 좁혀 오며 진우의 양손을 살폈다.</p>  
<p>'분명 무기를 들고 있는 걸 봤는데?'</p>  
<p>잘못 봤나?</p>  
<p>그게 뭐가 됐든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.</p>  
<p>차해인의 시선이 진우의 위아래를 훑었다.</p>  
<p>'안전모와 작업복... 우리 채굴팀 헌터인가?'</p>  
<p>길을 잃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 듯했다.</p>  
<p>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스방은 위험한 장소.</p>  
<p>이유는 둘째치고 일단 이 남자를 돌려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차해인은 판단을 내렸다.</p>  
<p>"여긴 보스가 있는 곳입니다."</p>  
<p>차해인은 늘 하던 대로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고 진우 앞에 섰다.</p>  
<p>"어서 밖으로 나가세요. 어글이라도 튀면 던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수도 있어요."</p>  
<p>"아, 죄송합니다."</p>  
<p>다행히 연기가 먹힌 것 같다.</p>  
<p>진우는 만족스런 얼굴로 차해인을 지나쳐 갔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'어?'</p>  
<p>차해인이 진우에게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있을 수 없는 일.</p>  
<p>눈을 동그랗게 뜬 차해인이 저도 모르게 진우를 불러 세웠다.</p>  
<p>"저기, 잠깐만요."</p>  
<p>"네?"</p>  
<p>"잠깐 저 좀 봐요."</p>  
<p>이 여자가 왜 이러지?</p>  
<p>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진우는 차해인이 다가오는 게 달갑지 않았다.</p>  
<p>하지만 차해인은 금방 진우 코앞까지 붙어 섰다.</p>  
<p>"왜... 그러시죠?"</p>  
<p>진우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, 차해인은 대꾸도 없이 진우의 근처에서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.</p>  
<p>코를 가리고 있던 손수건은 이미 치운 뒤였다.</p>  
<p>'뭐지?'</p>  
<p>진우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.</p>  
<p>'냄새는 왜 맡는 거야?'</p>  
<p>당황하는 진우.</p>  
<p>하지만 차해인의 당혹감은 진우보다 몇 배 더 컸다.</p>  
<p>'악취가... 안 나.'</p>  
<p>악취가 나지 않는 헌터를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.</p>  
<p>차해인은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진우의 얼굴에 물음표가 떴다.</p>  
<p>"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?"</p>  
<p>"당신... 헌터 맞아요?"</p>  
<p>말이 필요 있을까?</p>  
<p>진우는 목에 걸고 있던 헌터 자격증을 내밀었다.</p>  
<p>차해인은 헌터증을 받아 들고서 진우의 얼굴과 자격증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.</p>  
<p>'E급... 성진우...'</p>  
<p>등급이 너무 낮아서인가?</p>  
<p>진우에게선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.</p>  
<p>아니, 좋은 냄새가 났다.</p>  
<p>진우는 차해인의 손에서 자격증을 살짝 빼냈다.</p>  
<p>"저 가 봐도 되는 거죠?"</p>  
<p>"저기..."</p>  
<p>차해인은 진우를 불렀으나 더 할 말도, 붙잡을 만한 구실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</p>  
<p>"...아닙니다. 조심해서 돌아가세요. 던전은 넓으니까요."</p>  
<p>"아, 예."</p>  
<p>진우는 눈인사하고서 작업 현장 방향으로 돌아섰다.</p>  
<p>그의 뒷모습은 금방 동굴 저편으로 사라졌다.</p>  
<p>하지만 차해인의 시선은 한참 동안 진우가 사라진 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.</p>  
<p>'좋은 냄새가 났어.'</p>  
<p>\*\*\*</p>  
<p>식사를 마친 채굴팀 헌터들이 하나둘 작업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.</p>  
<p>이를 쑤시며 걸어오던 배 팀장은 던전 안쪽에서 나오는 진우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다.</p>  
<p>"어, 어? 성 씨가 왜 그쪽에서 나와?"</p>  
<p>"아, 그게..."</p>  
<p>진우는 잠깐 보스가 있는 방향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'A급 던전 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갔다 왔다고는 할 수 없겠지?'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다시 배 팀장으로 옮겨 갔다.</p>  
<p>"화장실을 찾다 보니 그만 길을 잃어서요."</p>  
<p>"아이고, 조심해야지! 던전 안은 거기가 거기 같아서 한 번 길 잃으면 찾아오기가 쉽지 않거든. 그런데 용케 잘 찾아왔네?"</p>  
<p>"오다가 차해인 헌터님을 만나서..."</p>  
<p>"아, 차 헌터님? 혹시나 보스가 뛰쳐나올까 봐 지키러 간 거야. 그 아가씨도 성 씨 못지않게 걱정이 많은 편이거든."</p>  
<p>배 팀장은 호탕하게 껄껄 웃어 댔다.</p>  
<p>아까 보스를 걱정하던 진우의 모습이 뇌리에 깊게 박힌 모양이었다.</p>  
<p>진우가 씁쓸하게 웃었다.</p>  
<p>'팀장님은 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지.'</p>  
<p>작업반 헌터들과 공격대 헌터들의 차이점이었다.</p>  
<p>차해인은 마수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이리라.</p>  
<p>'무표정한 얼굴을 하고선 그런 면이 또 있었네.'</p>  
<p>보스가 뛰쳐나오면 위험해지는 건 공격대가 아니다.</p>  
<p>공격대가 빠진 사이 작업하고 있는 인부들.</p>  
<p>그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 그녀는 달콤한 휴식을 반납하고 보스방 입구를 지키러 간 것이었다.</p>  
<p>'...대단한 여자.'</p>  
<p>차해인에 대한 진우의 솔직한 감상이었다.</p>  
<p>그때 문득 진우의 머릿속에 그녀의 독특한 버릇이 떠올랐다.</p>  
<p>'왜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고 다니는 걸까?'</p>  
<p>그러고 보니 방금 전 한순간을 빼놓고는 항상 손수건을 놓지 않았다.</p>  
<p>"팀장님."</p>  
<p>"응?"</p>  
<p>귀찮아할 만도 한데, 배 팀장은 진우가 부를 때마다 사근사근 친절히 대했다.</p>  
<p>'아까 작업할 때 반응이 좋더니만.'</p>  
<p>역시 일은 잘하고 볼 일.</p>  
<p>덕분에 진우는 편하게 이것저것 물을 수 있었다.</p>  
<p>오히려 배 팀장이 독촉해왔다.</p>  
<p>"성 씨, 사람을 불러 놓고 왜 말이 없어?"</p>  
<p>진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.</p>  
<p>"다름이 아니고요... 혹시 차해인 헌터가 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지 아시나요?"</p>  
<p>"아? 그거? 차 헌터가 유별나서 그렇지."</p>  
<p>"유별나다고요?"</p>  
<p>무슨 뜻일까?</p>  
<p>되묻지 않아도 배 팀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.</p>  
<p>"차 헌터는 헌터들한테서만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, 그게 그렇게 고약하게 느껴진다나 봐."</p>  
<p>"헌터들의 냄새를요?"</p>  
<p>"특이체질인가 뭔가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."</p>  
<p>특이체질이라.</p>  
<p>진우도 그거 비슷한 게 있기는 했다.</p>  
<p>뛰어난 청력.</p>  
<p>원래부터 귀가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각성자가 되고 나서는 더욱더 좋아졌다.</p>  
<p>'차해인의 후각도 그 연장 선상에 있는 거겠지.'</p>  
<p>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.</p>  
<p>"참 유별나지?"</p>  
<p>진우가 집중해서 귀 기울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, 배 팀장은 설명을 이어 갔다.</p>  
<p>"그 냄새 때문에 헌터들이 옆에 있을 때는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더구먼."</p>  
<p>"..."</p>  
<p>그래서였나?</p>  
<p>'나보고 헌터냐고 물었던 건.'</p>  
<p>다른 헌터들과 달리 내게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?</p>  
<p>전에 레드 게이트에서 만난 백귀 대장도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긴 했었다.</p>  
<p>-우리의 머릿속엔 끊임없이 목소리가 들려온다. 인간을 죽이라고. 그런데 네 앞에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군.</p>  
<p>그때 녀석이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일까?</p>  
<p>헌터 특유의 냄새도 없고, 죽이라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.</p>  
<p>'내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...'</p>  
<p>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유일한 존재.</p>  
<p>플레이어란 대체 무엇일까?</p>  
<p>잠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떠올렸던 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'어차피 지금은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.'</p>  
<p>진우는 머릿속을 비웠다.</p>  
<p>고민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머리에 담고 있어 봐야 지치기만 할 뿐이다.</p>  
<p>콱! 콱!</p>  
<p>그때 동료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진우는 다시 곡괭이를 집어 들었다.</p>  
<p>'A급 보스... 잡아보고 싶었는데.'</p>  
<p>그때 차해인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?</p>  
<p>그게 못내 아쉬웠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의 눈부신 활약 덕에 채굴팀 작업은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끝났다.</p>  
<p>팀장 말로는 예정보다 2시간이나 빨랐다나.</p>  
<p>그쯤 되니 채굴팀 동료들의 눈빛도 달라졌다.</p>  
<p>"수고했어, 성 씨!"</p>  
<p>"잘하던데?"</p>  
<p>"난 마석 떨어지는 거 보고 어디서 굴삭기라도 가져온 줄 알았다니까."</p>  
<p>진우를 둘러싼 헌터들이 한마디씩 칭찬을 늘어놓았다.</p>  
<p>게이트에 들어오기 전 부딪혔던 쌀쌀맞은 눈빛들은 온데간데없었다.</p>  
<p>진우도 기분 나쁜 얼굴은 아니었다.</p>  
<p>던전 광부로서의 경험도 흥미로웠고, A급 던전에 온 목적도 달성했으니까.</p>  
<p>"이제 나가자고."</p>  
<p>"옙!"</p>  
<p>"갑시다!"</p>  
<p>배 팀장의 지시에 따라 채굴팀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.</p>  
<p>"하나, 둘."</p>  
<p>"여차!"</p>  
<p>아직도 작업에 시달리고 있는 수거팀 헌터들을 뒤로 하고, 게이트를 빠져나온 채굴팀은 환복한 뒤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.</p>  
<p>정규직원인 다른 팀원들과 달리 진우는 일당이 현금으로 바로 나왔다.</p>  
<p>"여기 성 씨 거."</p>  
<p>"감사합니다."</p>  
<p>배 팀장은 일당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며 슬그머니 물었다.</p>  
<p>"우리 지금 회식하러 갈 건데, 성 씨도 같이 갈 텨?"</p>  
<p>말투는 가벼웠지만 배 팀장의 눈빛은 진지했다.</p>  
<p>'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 같긴 한데...'</p>  
<p>간절함이 느껴졌다.</p>  
<p>그러나 진우는 정중히 사양했다.</p>  
<p>"죄송합니다."</p>  
<p>"음... 그래?"</p>  
<p>배 팀장이 턱을 긁적였다.</p>  
<p>'이런 건 술이 좀 들어가고 나서 해야 하는 이야기지만...'</p>  
<p>그는 작전을 급히 변경했다.</p>  
<p>"내가 이 일을 몇 해나 해 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여."</p>  
<p>"네."</p>  
<p>"자네 같은 사람은 정말 처음이더만. 자네는 광부가 될 소질이 아주 타고났어."</p>  
<p>배 팀장은 진우가 어지간히도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.</p>  
<p>'하하... 이것 참.'</p>  
<p>진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음을 흘렸다.</p>  
<p>그 미소를 좋은 조심이라고 판단한 배 팀장이 자신감 있게 본론을 꺼냈다.</p>  
<p>"내가 웬만해선 이런 얘기까지는 잘 안 하는데... 자네 내 밑에서 일해 볼 생각 없어?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 줄게."</p>  
<p>성진우라는 청년.</p>  
<p>광부일 첫날부터 웬만한 베테랑 광부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은 작업량을 해치우는 걸 보여 줬다.</p>  
<p>이런 보물 같은 인재를 잡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팀장 자격 실격이 아닌가?</p>  
<p>담당자를 설득해서 성과급을 따로 지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성진우를 잡고 싶은 마음이었다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진우는 단호했다.</p>  
<p>"말씀은 감사합니다만... 제가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요."</p>  
<p>진우의 한마디에 배 팀장은 나라를 잃은 듯 시무룩한 얼굴이 되었다.</p>  
<p>"그... 그래?"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.</p>  
<p>'재미있는 분이시네.'</p>  
<p>감정이 이렇게까지 표정에 드러나다니.</p>  
<p>아마도 배 팀장님은 자신이 E등급에 숨어 있는 보석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.</p>  
<p>고민하던 배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.</p>  
<p>"그럼 내일은 어때? 내일은 나와줄 수 있어?"</p>  
<p>"내일은, 흠..."</p>  
<p>사실 내일까지 한가하긴 했다.</p>  
<p>모레가 재측정이니.</p>  
<p>그런데 또 광부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대략적인 공략 과정은 파악했고, A급 보스 구경도 했으니 말이다.</p>  
<p>그런데 그때.</p>  
<p>'잠깐만.'</p>  
<p>거절하려고 입을 열었던 진우의 뇌리에 빠르게 스쳐 가는 의문이 있었다.</p>  
<p>"그럼 내일도 헌터스의 레이드가 있는 겁니까?"</p>  
<p>"있지. 그것도 A급 게이트야."</p>  
<p>"그게 가능합니까? 오늘 레이드가 끝났는데."</p>  
<p>레이드를 하고 난 공격대는 일주일 정도는 쉬어 주는 게 보통이다.</p>  
<p>'이번 레이드는 어제 오후부터 시작됐다고 했다.'</p>  
<p>그렇다면 헌터스의 정예들은 어제와 오늘, 이틀 연속으로 레이드를 한 셈이다.</p>  
<p>아마 수거 작업 후 보스를 처치하고 나면 새벽이 될 터.</p>  
<p>내일 레이드를 한다는 말이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았다.</p>  
<p>진우가 관심을 보이자 배 팀장도 흥이 났다.</p>  
<p>"내일은 A 공략팀 대신 B 공략팀이 나설 거거든."</p>  
<p>B 공략팀?</p>  
<p>설마 A급 던전을 2군으로 클리어 하겠다는 건가?</p>  
<p>"이게 바로 헌터스 길드의 저력이지. 대한민국에 A급 게이트를 두 팀으로 나눠서 공략할 수 있는 길드는 헌터스 뿐인걸?"</p>  
<p>배 팀장은 자랑스럽게 말했다.</p>  
<p>"헌터스의 레이드는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까?"</p>  
<p>"아니, 아니. 평소에는 팀을 나눌 만한 일이 없었지. 그런데 이번에는 일정이 겹쳤나 봐."</p>  
<p>헌터스가 담당하는 구역에 A급 게이트가 동시에 나타나는 바람에, 두 개 게이트의 허가를 동시에 따내느라 최종인 사장이 진땀을 뺐다고 한다.</p>  
<p>'아, 어제 협회에서 최 대표를 만났던 건...'</p>  
<p>최종인같이 바쁜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협회를 찾았을 리 없지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그럼 2군으로만 레이드를 시도하는 건 처음이란 말씀이죠?"</p>  
<p>"그렇지. 그런데 헌터스의 2군은 2군이 아니야. 어지간한 대형 길드 1군보다 뛰어나다고."</p>  
<p>"그래도 오늘보다는 훨씬 위험하겠죠?"</p>  
<p>배 팀장은 말문이 막혔다.</p>  
<p>당연한 이야기였다.</p>  
<p>오늘 레이드는 S급만 두 명이 참가했다.</p>  
<p>반면 내일은 A등급 이하로만 공략을 진행한다.</p>  
<p>내일 공략할 게이트는 오늘 것보다 규모가 작다고 듣긴 했지만, 그래도 S급 둘이 빠진다는 건 큰 타격이었다.</p>  
<p>S급 공격대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도 보스급 마수를 걱정하던 성 씨인데.</p>  
<p>'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.'</p>  
<p>내일도 같이 작업하며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던 배 팀장은 이제 다 틀렸다는 생각에 아쉬운 낯빛을 했다.</p>  
<p>"훨씬 더 위험한 셈이지. 잘못하다간 레이드 자체를 실패할 수도 있고."</p>  
<p>그러자 진우의 눈빛이 변했다.</p>  
<p>=</p><div><br></div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